

보도설명자료

(‘14. 7. 3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’ 호지부지되나 (‘14.7.30,
디지털타임스)

1. 보도내용

- ☐ ‘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’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사업 자체가 호지부지되고 있음
- ‘04년부터 현재까지 보급된 그린홈은 총 20만호로 정책달성률이 20%에 불과하며, ‘20년까지 80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

- ☐ 그간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, 현재도 사업의 연도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

* ‘13년 실적 19.2만호(목표 14.6만호), ‘14년 예상실적 21만호(목표 20.1만호)

- ☐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목표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,
 - 금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, 집행할 계획이며,
 - 아울러 태양광대여사업과 같이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장기반의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. 끝.

※ 자료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, 박병기 사무관(044-203-5172)

